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 많은 교인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강산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제37대 장로 임직예배

금주 수요일(4월 1일) 수요일 2부예배 시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 작년 9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된 장로 열 분이 6개월 간의 교육을 마치고 마침내 금주 수요일(1일)에 임직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피택장로님들은 매주 토요일에 있었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만을 소망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마 16:24). 아무 공로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피(벧전 1:19) 흘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임직을 받으실 열 분의 피택장로님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고전 2:2)뿐이며, 이들의 고백은 하나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믿음뿐입니다(고전 15:31). 이제 임직을 받으실 피택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 4:17)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고후 4:1)의 말씀처럼 언약의 보증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전 성도도 하나님께 금주에 드리는 임직예배 시간이 은총의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37대 장로 임직자

김현철 (89-1472, 13교구) 진혁래 (83-129, 18교구) 김신국 (87-81, 1교구)
전계식 (80-201, 7교구) 김형근 (84-450, 3교구) 장승국 (88-941, 2교구)
전준배 (6363, 14교구) 석영식 (1980, 11교구) 주재환 (89-674, 2교구)
송두성 (81-45, 7교구) *나이스

*오늘(8일) 2부, 3부 예배는 가족헌액예배로 드립니다
(영양, 유아, 유치부는 자체 예배)

오늘(8일), 제6차 CMTC 훈련 안내 (둘째 날)

현제 21개팀 562명의 중년들이 십자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중년들의 발걸음은 오늘 저녁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못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과 같이 권이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훈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히 13:12).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4)

역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약속으로 가득차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완성된 메시아의 구원을 담고 있다. 이런 주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온통 메시아의 예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셨다(창 3:15). 이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해 구약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서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역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역사의 진행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메시아의 약속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세 율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호를 세우신 하나님은 역사서를 통해 구약적으로 그 약속을 진행시키신다.

역호수라는 오실 구세주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은 예수 라는 이름의 뜻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기업을 얻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히 2:10) 들어가게 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역할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의 세 가지 직무를 제시한 것이다. 사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을 예수님은 은혜로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뜻기에 나타난 고엘(gael)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기업주를 자(뜻 33)라는 뜻이다. 고엘은 진족의 빛을 갖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는 고엘이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은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비천한 목동의 신분으로 유대왕이 되었다. 그는 메시아로 오실 왕의 선조가 된 기를루를 받은 왕이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눅 18:39)으로 오셨다. 다윗의 삶이 거절과 고통으로 온 시련과 같다면 예수님의 삶도 고통과 고난으로 이어진 삶이었다. 다윗과 하나님은 맺은 언약(삼하 7:4-17) 왕이 될 것과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상종 약속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한 것이다(눅 1:32-33). 열왕기에 나타난 솔로몬의 지혜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고전 1:30)라고 부른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영광과 영향력도 예수님이 오셔서 '솔로몬 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2)고 말씀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열왕기하에 나타난 바울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반목하다가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한 왕조를 볼 수 있다. 역대서에는 국가적인 계보를 정리하면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한다(왕하 23-15). 성경은 유다 지파를 통해 왕조가 이어지고, 성전이 건축되며, 장래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조형해 출하고 있다. 역대하에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암시한다. 에스라와 다윗의 후손을 지킴으로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태어날 곳으로 정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것이다. 느헤미야도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의 고초를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높은 지위를 포기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구체적인 시명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마 4:14) 에스라를 권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인도하셨다.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배가 차며(갈 4:4) 어린나 일이라고 선포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서에서 실제로 증거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한창덕 목사)

제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타종교 이해 및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오후 7:10~8:10)	갈릴리움

정교 카톨릭(베나나홀) / 회교(나사렛홀) / 힌두교(본당 112호) / 불교(갈릴리움)
(※제2강 강의는 '타종교 이해 30분,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 30분입니다.)

PENTECOST

“(1)And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3)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4)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Acts 2:1-4)

The church celebrates Pentecost (Greek name for fiftieth day) as the anniversary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disciples fifty days after Jesus' resurrection, which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Originally, it represented the culmination of the Old Testament Feast of Weeks. The Feast of Weeks occurred seven full weeks after the wave offering of the Firstfruits at Passover, on the day after the Sabbath, a fifty-day interval (Lev. 23:15).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srael's festivals were communal and commemorative as well theological and typological. Passover memorialized God passing over or sparing the Israelites in preparation of their exodus from Egypt and arrival to the Promised Land, and Unleavened Bread, which immediately followed Passover, signified the haste of their preparation to depart. When Israel reached the Promised Land, they celebrated Firstfruits, which took place at the beginning of the harvest and signified their dependence on God (Lev. 23:9-14). Feast of Weeks celebrated the end of the grain harvest, which occurred fifty days after Passover and signified their gratitude to God (Dt. 16:9-12; Ex. 34:22).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God gave Moses His ten commandments on Mt. Sinai fifty days after Israel's freedom from Egyptian slavery.

In God's providence, the sequence from Passover to Pentecost is meaningful from the New Testament perspective. The Lord's Supper was a Passover meal; Jesus' crucifixion at Passover was the sacrifice for the deliverance of His people. Unleavened Bread symbolizes the need for quick removal of evil in our church and homes. Jesus' resurrection and forty days teaching in His resurrected body were the Firstfruits of a new life, and the promised Holy Spirit arriving fifty days after Jesus' resurrection, which formed the Christian Church, reminds us of the spiritual benefits obtained when God gives His Word and Spirit.

In today's Bible verses, we read about the Holy Spirit coming down from heaven on the day of Pentecost,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vv. 2-3). This Day of Pentecost marked the formation of the Christian church. A gathering of about one hundred and twenty believers experienced God's breath resting upon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v. 4). Instantly, they all changed and became part of the body of Christ. Their faith in and obedience to Jesus Christ enabled them to receive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become part of His body, which is the Christian church.

The Holy Spirit's coming not only formed the Christian church, but also freed God's people from the world. 2 Corinthians 3:17 says,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Like the Israelites, God's providence brought a new life of freedom. This new life affected each individual's heart and brought them together to live and work as God's children for His glory, "who also sealed us and gave us the Spirit in our hearts as a pledge" (2 Cor. 1:22). The Holy Spirit touched each individual for a special purpose. Before His coming, the earth enslaved people, but through God's promised gift, believers become His children and are set free from the bonds of the world, so that they can have abundant life.

What is even more amazing is that on Pentecost Day God instituted a new law. The Holy Spirit now leads believers, not Moses' law. Before His coming, Moses' Law guided and directed God's people, but now He teaches us everything we need to know (see Jn. 14:26). He helps us in all things. John 16:13 tells us, "But when He, the Spirit of truth, comes, He will guide you into all the truth; for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disclose to you what is to come." The Holy Spirit will not guide you sometimes or even most times, but all the time and in all the truth.

I hope every believer who hears today's message understands the full privilege of his or her position of such exalted living. Romans 8:14 says, "For all who are being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the sons of God." The wonderful Holy Spirit always leads God's children to victory,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 in Christ, and manifests through us the sweet aroma of the knowledge of Him in every place" (2 Cor. 2:14). Please appreciate the blessed gift of the Holy Spirit given by God through Jesus Christ, and do not make Him sa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Eph. 4:30). He is pained by sin, especially the sins of the tongue.

My dear friend, the Holy Spirit is an awesome spiritual blessing. His power seals you into Christ's body, frees you from the chains of sin, and leads you to heavenly victory. He cultivates and harvests the Firstfruits of Christ's resurrection. The Pentecost of the Old Testament was a small sign from God that pointed to the Pentecost of the New Testament, which was a gigantic blessing from God. Today is Pentecost, the time we celebrate the Lord's bountiful gift of the Holy Spirit that started the Christian Church. I hope your new life, as a born again Christian, does not grieve the Holy Spirit but rather glorifies God in the highest. As the Galilean fishermen and others placed their faith in Jesus Christ, confessing and repenting of their sins before the Lord God, the Holy Spirit rested upon them and changed them upside down. As we come together now and remember Pentecost Day, let us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so that the Holy Spirit can upturn us to serve God in marvelous ways. Amen. 🙏

성령강림절

- 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②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③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④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1-4)



김성관 목사

부활로부터 50일 후

교회는 성령강림절(그리스어로 5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함)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칠칠절의 절정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 날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말합니다(레 23:15). 날짜로 따지면 유월절과 칠칠절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공동체적, 기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신학적,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신 것 곧 넘겨두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은 그들이 급박하게 떠나야 했음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초실절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다레 23:9-14). 칠칠절은 곡물 수확이 끝나갈 무렵, 곧 유월절 후 50번째 되는 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산 16:9-12, 출 34:22).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50일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 날 사자가 못 박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유월절 희생양이었습니다. 무교절은 교회와 가정에 퍼져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40일 동안의 사역은 새로운 삶의 첫 열매(초실)에 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만에 임하신 성령은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말해 줍니다.

강림하신 성령님

오늘의 본문은 오순절 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2:3절). 이 성령강림절은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을 자라게하는 날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자신들에게 머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4절). 성령을 받은 그들은 완전히 변화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았고 그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하여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라는 새로운 삶을 허락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은 개개인의 심령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충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 1:22).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

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우리들은 세상에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세상의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다독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요 14:26). 또한 성령은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은 성령께서 가끔 혹은 때때로의 경우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항상,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신들의 신분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또 그로 인해 자신들이 얻게 된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라우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 4:30). 성령은 죄로 인해, 특별히 입술로 짓는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성령강림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며, 하늘의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첫 열매들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십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이 임한 신약의 오순절을 예표하는 작은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있게 한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 곧 성령의 강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마십시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성령강림절을 기념하고 있는 우리는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장로 칼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2교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김의철 (2교구장)

2교구는 교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교회 주변의 교구입니다. 2교구에서 늘 교회를 왔다갔다하면서 세상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 라마나온은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도 라마나온 땅만 밟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변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삼상 19:18-24). 이처럼 교회 주변 교구인 2교구의 땅을 밟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충성스러운 교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2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의 신년 예배 설교를 통해 새 마음과 새 소망을 품고 시작한 2005년도가 벌써 다섯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의 연료나 직분, 나이 등을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일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금년 한 해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2교구가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2교구는 2005년도의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라”(히 12:2)와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로 정하고 생령과 기쁨과 소망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은 교구 식구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힘쓰는 것은 교회가 전례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배와 집회로 모일 때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총력으로 집중하는 단기선교와 1인 1명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 특히 우리 교회의 큰 특징이며 아주 중요한 금요집회에 참석하여 은 교회적 일치를 맞으며 교회의 진행 방향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일에 전 교구

의 힘을 쏟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되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한 10개팀 100여 명이 이미 팀 구성을 끝내고(개 팀은 이미 다녀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MTC 훈련을 비롯한 언어훈련, 영성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받고 있으며 4주간 진행되는 “십자가의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십자가 정병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주변 전도를 위하여 각 전도회가 한달에 2회 이상 주변 전도지역에 나가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는 전 교회의 교회주변 전도의 최대 수혜교구이기에 더욱 감사하며 이 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구 식구들이 모이면 전도와 선교이야기가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1인 1명 전도를 위하여 교구 차원에서 새신자 초청집회(숙 15:4)를 통하여 그 동안 기도해 오던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도 자원봉사 팀장의 지도 아래 매주 1회씩 모여서 본당 3층과 2층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루디아 전도회는 1인 전부러 본당 3층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일 교구모임 시간에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전 교구 식구들이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운동을 펼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히 12:2). 그래서 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 각 개인임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교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여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서 성령님만 의지(전 3:6)하며 선교와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다 때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마 28:18-20)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2교구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직원4팀의 선교후기

성령의 역사

선교 중에 사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살펴보니 한 소녀가 전도지를 받아 열심히 읽고 있었다. 스님이 소녀에게 전도지를 보여 달라고 하더니 받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읽으며 가는 모습을 보았다. ‘스님이 왜 가지고 갈까? 한 번 읽어 볼 의향으로 가지고 가나?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들었다. 주변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기를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돼.’라고 깨달으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큰 힘을 얻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기차역 근처 마을에서 전도하게 되었을 때 공터에서 청년들이 배구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우리 팀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어른들과 아이들이 우리 걸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하자 기차가 역에 도착하였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지를 달라고 손짓하였다. 여기 저기서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번 선교를 통해 사람들이 전도지를 부딪히며 받아 열심히 읽는 것과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따라부르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되어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

강명철(행정과)

이번 선교는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 다. 선교 준비 중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꼈고 사역할 나라에 도착해서도 우상이 가득한 주위의 모습 때문에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권면하며 기도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며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점차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굶주리고 있었는지 마음으로 느끼면서 또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구영철(행정과)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님의 역사를 한정하지 않으 며 준비해 간 전도언어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승려와 불상 앞에서, 시장에서, 학교 앞에서 열차에 전해진 복음들... 우리가 열려하고 격정하는 모든 것이 경험에 의존하고 상식에 의존하는 편견일 뿐이었으며, 성경의 역사는 제한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도 넓은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미전도 종족이 아직 많은 까닭에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이 더욱 무거움을 느낍니다. Y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저희를 도우 감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사람을 건진하여 데려가라 내 집을 채우라”(눅 14:23)는 주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병주(행정과)

앞뒤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타워가 줄지어 선 도시. 승려들이 마치 행진이라도 하는 듯 지나다니는 곳. 우리 팀은 첫날 사역부터 타워 앞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상과 승려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무겁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거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하고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말로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전례 후에 전도지를 받아 읽는 모습!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반목할수록 즐겁게 기쁨으로 부르는 어린이들의 밝은 표정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재명(관리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명한 자녀로 ③

“나의 가장 큰 소망”

저는 11살 때에 친구의 언니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친구 언니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가정교회에 언니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울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까?’ 하고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정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생활을 하던 중 주일에 어느 자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요 시작되었던 그 간증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저의 가족들을 그리고 저의 친구들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다니면서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죄가 없으신 정결하신 분이 무섭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드러난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2000년 9월에 모국의 외국어대학 한국어과에 입학하고 대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집과 멀리 떨어져 있던 저에게 주님은 항상 저의 친구였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생령수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2002년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라는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지금도 없어지지 아니한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온 삼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삼촌에게 저는 한국의 신학교를 소개받았고 춘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선교사 준비생이 되어 현재 외선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한 죄인인 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쾌락을 좇아가는 그들에게 정말로 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현진인 선교사 준비생)

충현의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는 살아 있었습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명의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금주(12일)에 Y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의 사역이 오직 십자가로 승리(골 2:15)할 수 있는 단기 선교(3개월)가 되도록 전 선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홍현

오상현

말씀으로 이끄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먼저 선교를 지원할 마음을 주신 주님께 그리고 그 결정에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는 결정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2003년 9월 군 전역 이후 선교를 여러 번 다녀오면서 ‘나도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기 힘든 귀한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서, 학교를 가기 귀찮아서 가는 선교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를 한달 정도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 마음에 확신을 결정하고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주님께서는 그 결정에 대해 주인의 말씀으로, 토요일의 대학부 집회로, 새벽 예배 때의 말씀으로 그리고 변역 찬양대에서의 찬양과 말씀의 묵상에서 내가 믿기 힘들 정도로 나의 마음을 격려해주셨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딤후 1:3). 이 결정의 과정에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 깊숙히 들어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 모르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힘들어 하는 저를 위해 미세한 부분까지도 만져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는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기대되고 기쁩니다. 그 알 수 없는 땅에서 낙하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사용하여 이루실 일들이 보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21).

오상현 (대학부)

나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자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피흘리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제가 원하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고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가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 겨울, 주님께서 드디어 저에게 단기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로는 제일 어린 나이에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고,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날 위해 피흘리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골 1:18).

김홍현 (대학부)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25일(월) - 5월 4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4월 25일(월) - 5월 4일(수)	교구외 간사팀	이홍우
4월 25일(월) - 5월 4일(수)	7교구 3지역	신용환	4월 28일(목) - 5월 7일(토)	청년2부 2	허형철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5교구 6지역	신동식	4월 29일(금) - 5월 7일(토)	2교구 3지역	박창서
4월 25일(월) - 5월 4일(수)	15교구 3지역	김태서	4월 29일(금) - 5월 7일(토)	교구외 2지역	조종상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9일(월) - 5월 16일(월)	9교구 4지역	정재호	5월 12일(목) - 5월 20일(금)	3교구 3지역	허만선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3교구 6지역	정영삼	5월 12일(목) - 5월 21일(금)	8교구 7지역	전성욱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2교구 5지역	정원훈	5월 12일(목) - 8월 13일(토)	대학부	오상현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10교구 4지역	조영철	5월 13일(금) - 5월 21일(토)	16교구 3지역	이상범
5월 11일(수) - 5월 18일(수)	14교구 4지역	김재수	5월 13일(금) - 5월 21일(토)	16교구 추가1	구창희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2일(월) - 5월 9일(월)	3교구 7지역	윤영규	5월 3일(화) - 5월 12일(목)	18교구 7지역	유상태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6지역	조종명	5월 4일(수) - 5월 13일(금)	1교구 9지역	이승재
5월 2일(월) - 5월 12일(목)	18교구 6지역	김희호	5월 4일(수) - 5월 13일(금)	12교구 6지역	이성식
5월 3일(화) - 5월 12일(목)	2교구 8지역	이정재			

참 생명의 복음

지난 주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일 년이 되는 날이다. 외가에서 준비한 제삿상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아홉 살 때,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울었던 기억이 난다. 친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늘 틀니를 물이 담긴 컵에 넣고는 돌돌기를 쓰고 성경을 읽으셨다. 저녁에는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기 전에 찬송가 405장을 다 부르고 감사기도까지 하게 하셨기에, 늘 뜨거운 국을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교육에 열하셨기에 항상 내 손을 잡고 문방구에서 가서 볼펜주머니를 사 오셨고, 이를 후에 배울 수업내용을 예습시킨 분이셨고, 항상 나를 안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분이요, 그런 할머니가 갑작스런 병환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잘못된 것처럼 많이 울었다. 이때 내게 단 한 가지의 위로가 있었다면, 할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현아, 천국에서 할머니가 기다리실 거야. 울지 마.”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

작년 1월의 어느 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알고,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엄마...”

“그래, 대현아,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너무 급하게 오진 말고 조심해서 오렴...” 내 머릿속을 강타한 것은 분명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는데... 아, 그럼 이제 끝이란 말인가?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기에, 나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어릴 때부터 항상 외할머니께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외할머니는 누구를 믿든지 잘 믿으면 된다고 하시며 대답을 피하셨다. 군복무 중 휴가 때마다 나에게 늘 당신의 꼬깃꼬깃한 찜질돈을 억지로 쥐어 주셨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셨으며, 젊을 때 혼자 되어 7남매를 키우시며, 그 중 아홉 셋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셨고, 호강보다는 늘 삶의 힘든 부분을 거쳐 오신 외할머니셨는데... 구원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슬퍼하셨는지 모른다. 그토록 슬퍼하시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외가 선산에 올라가 외할머니의 시신을 흠으로 덮을 때, 통곡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를 부축하는 나도 입술을 깨물어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한 게 있다. 다시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장례식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눈물만이 가득한 장례식은 없게 하겠다고...

외할머니를 땅에 묻었다. 그리고 내 가슴에도 묻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는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나는 이 책다, 쓸데없는 세상의 소리를 무시하고 오늘도 전직 생명, 참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떠돌다. 오묘한 복음의 비밀을 나란 알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태현 (대학부)

그 동안의 생활을 회개하며

입교 후 첫 성찬을 가졌다. 평소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부모님께서 참여하는 모습만 보았는데 내가 직접 참여하니 느껴지는 게 많았다. 지금까지의 나는 기도하려고 해도 한 3분도 안 되는 기도를 마치고 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다짐도 이틀이 못 가 무너져곤 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문밖에서 세기게 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면 자신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첫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목상하시며 내 마음의 떨림을 느꼈다. 이제부터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다. 선교 준비도 열심히 할 것이다.



정지현 (중등3부)

“토끼처럼 귀가 커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작년 겨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가는 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꼭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은 나사르를 살리셨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아픈 친구들도 낫게 해 주세요.

예수님! 거짓말하고 서로 싸우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유년부 목사님, 찬양대, 찬성, 운동하는 선생

님, 유년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세 힘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만

나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토끼처럼 귀가 커져서 하

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목사님, 찬양대, 찬성, 운동하는 선생

님, 유년부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세 힘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유년부 나혜리 올림

품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친근하게 아 빠 되신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 ‘아 빠!’ 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고 다닌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 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역시 나는 그렇게 하지 못 한다. 나에게 있어서 ‘죄’는 늘 내 가 달고 다니는 꼬리표이다. 그리고 나란 존재는 건방짐기에 그치않고, 그래도 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부르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늘 당연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고백이 나에게 도전을 주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 하겠다’ (19절)고 고백 한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 같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당연하기만 했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둘째 아들처럼 내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지만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을 감당치 못해서 ‘나를 품꾼으로, 종으로 보소서’ 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난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어떻게 보면 뻔 뻔스럽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은 종으로의 삶을 살아갈 작오하지는 것을 보게 된다. 종의 지의 자유, 감정의 자유, 생각의 자유, 그 어느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주인이 즐거워하는 대로만,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이 먼저인 것이다. 사람들은 헌신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의 결심에 헌신이라는 단어는 무색하게만 느껴진다. 헌신으로 표현되는 어 색이란 행한 자연스럽게 종의 삶이 아버지를 떠나 맘대로 살던 때보다 낫기에 나 은 것을 애만 느낄뿐이다. 자신에게 붙어 있는 죄의 꼬리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가? 죄에 대해 얼마나 애통 해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는다. 이후에 또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밀려온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 생각한 말을 다 행동으로 전제, 즉 “나를 품꾼의 하나 로 보소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빨리!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지! 내 아들이 돌아왔노라!” 그렇다, 이 순간이 비로소 내가 내 입으로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러 주시는 순간인 것이다.

나에게 있어 죄의 습박함이 어떠한지 알기를 원한다.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되어 주님 앞에 구하길 원한다. 알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 앞에 구하게 하소서!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이후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의 품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가 없으면 후했다.

이정주 (대학부)

교회 탐방 63 유년부 찬양대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다들 어지럽지 않은 아름다운 음을 일러 순수한 아름다운 음이라고 하는가? 유년부 아이들은 주님 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로 찬송가 388장을 마음껏 찬양 드리고 있었다. 고운 목소리는 하늘을 날르는 새가 되어 주님께로 올라갔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실 때는 그 목소리를 다시 돌려받으실 것을 계책하셨으리라.

유년부 찬양대에서 무엇을 하나요?

예배 때 열심히 찬양을 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 드려요. (유상원)
찬양하고 기도해요. (이진은)

유년부에서 제일 신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지휘자 선생님이나 찬장에 주실 때와 재미 있는 표정을 보여 주실 때가 좋고 신나요. (김재민)
친구들과 장난칠 때가 재미있어요. (이재환)
본당에서 어른들 앞에서 찬양을 했을 때, 정말 기뻐요. (설희원)
선생님이 찬양을 가르쳐 주시다가 웃을 때가 좋아요. (이수민)
예수님께 진심으로 찬양 드릴 때가 신나요. (이마은)

목시 힘이 들 때도 있나요?

아이들이 떠들어서 선생님이 화를 내실 때가 힘들어요. (이재나)
아이들이 떠들면 견습아가기 힘들어요. (이재환)
목이 아플 때는 찬양아가기 힘들어요. (이마은)

힘이 들 때, 어떻게 하나요?

힘들어도 찬양을 하면 감기가 쭉 뚫 나요. (이마은)
견습아가기 힘이 들지만 목이 터지게 찬양을 해요. (이마은)
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김병찬)
무조건 열심히 하면 힘들지 않아요. (신소은)
찬송을 열심히 해요. (김예은) 기도해야죠. (박지은)
찬송하면 힘이 안 들어요. (문은영) 예수님 생각해요. 예수님께 영감 받으려요. (최원근)
조용히 앉아 찬송해요. (최예은) 기도와 찬양이 최고예요. (유상원)

지금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할래요?

아무나 자라다 대접해야죠. (양혜수) 먼저 찬송하죠. (김예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요. (장유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송할 거예요. (아주희)



오금 기도하는 내용은?

우리 엄마를 불쌍하게 여겨 주세요. (전은진)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해 주세요. (김예원)
외할아버지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신서은)
우리 가족이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이지연)
유년부 찬양대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임인 듣게 해 주세요. (이지은)
우리 아바를 구원해 주세요. (김예주)
온 가족이 안 아프게 해 주세요. (김예연)
엄마 임인 듣게 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최안 갖게 해 주세요. (김재민)
부모님 말 잘 듣고 착하게 자라게
도와 주세요. (김예은)
동생이 파죽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박정은)
친구 초창의 날, 친구 천도하게 임을 주세요. (홍예은)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이 안 떠들면 좋겠어요. (최서연)
기도 잘 하게 해 주세요. (김예은)



유년부 찬양대는 자신들이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찬양을 드린다. 그래서 그것은 순수하다. 이 모습은 생전의 주님이 몸소다 사랑하셨던 아이들의 모습이다. 유년부 찬양대 어린이들이 목소리 높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참 웃으시겠다.

(편집실)

다름 주일 찬송

173장 불길 같은 성령

이 찬송은 구세군에서 노방전도를 위해서 찰스 윌리엄 프라이(Charles William Fry, 1837~1882)가 작사한 곡으로 영국의 민요곡에 맞춰서 부르도록 하였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부흥집회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 폐에 이상이 생겨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쳤다.

1절은 시도했던 2년 성령강림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주로 믿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로 사모 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말한다.

후렴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령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 내렸던 그런 불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다.

2절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제단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할 수 없다. 성령을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3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다 바치고 비고 비인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다. 성령은 만물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찬양처럼 우리도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한다.

4절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께서 보아서 성령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 으니 지금 성령을 내려주시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구한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20	전종식	14 장년2부	조윤성(2)	1339	공상용	12 장년2부	정성재(13)	1358	박익	19 청년1부	김영희(4)
1321	박익수	15 장년3부	박복숙(4)	1340	이희희	1 장년1부	김학선(19)	1359	하숙현	1 장년2부	김은실(16)
1322	이상진	15 장년1부	이민영(4)	1341	김희	6 장년3부	이민영(7)	1360	정현	19 청년1부	최영애(10)
1323	이경숙	8 장년1부	김남규(1)	1342	박태준	19 청년1부	김영선(14)	1361	김민규	11 에배디부	민정주(19)
1324	유소영	4 장년1부	이병근(4)	1343	강영민	12 장년2부	이소연(12)	1362	박성철	19 청년1부	
1325	김근아	1 장년2부	오영선(2)	1344	홍현철	19 청년1부	박순복(4)	1363	강홍식	19 청년1부	김진미(13)
1326	임미선	5 장년2부	정태동(5)	1345	박귀수	19 대학부	이동희(4)	1364	이광호	16 청년1부	오혜옥(10)
1327	박삼미	19 장년1부	오영진(13)	1346	임규규	19 청년1부	신정숙(4)	1365	이진아	19 대학부	정명식(18)
1328	박근배	19 청년1부	허종철(1)	1347	양영민	19 청년1부		1366	류재훈	19 청년1부	강철형(18)
1329	박한주	19 청년1부	조영목(1)	1348	이희희	4 장년1부	김민아(1)	1367	유신	19 대학부	오수미(19)
1330	김경희	14 장년2부	홍복기(7)	1349	김준영	2 중동2부	김상현(2)	1368	황해림	19 대학부	정창수(4)
1331	김태순	19 청년1부	김정혜(6)	1350	김동현	19 중동3부	조근식(4)	1369	황동일	19 대학부	정창수(4)
1332	전상진	8 장년2부	박희숙(4)	1351	이희진	10 장년2부	김소현(1)	1370	문승준	19 대학부	
1333	이승훈	19 청년1부	김동희(16)	1352	김병권	19 대학부	최하재(14)	1371	신현태	19 대학부	
1334	조주현	19 대학부		1353	변재우	1 장년2부	김정현(7)	1372	강선규	19 대학부	최순배(14)
1335	김진희	8 장년2부	전옥순(1)	1354	장민아	19 장년2부	장득국(4)	1373	문승환	19 청년1부	이현재(19)
1336	김근국	8 장년2부	전옥순(1)	1355	정진홍	4 장년1부	심윤경(4)	1374	소미심	19 청년1부	민수정(19)
1337	김성희	8 장년2부	전옥순(1)	1356	김정경	4 장년2부	남현숙(4)	1375	박건표	19 청년1부	이현진(10)
1338	김영일	19 청년1부	김홍현(16)	1357	김정성	4 장년3부	최광현(4)	1376	이순영	4 소망부	

★ 총신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